

격려사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을 공경의 마음으로 기념하며, 스님의 뜻을 현시대에 기리는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용성조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에 안타까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종단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후학의 마음가짐은 물론 일반사회에 스며든 불교적 성취들이 스님의 공덕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중과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업적과 사상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시대에 맞게 선양하는 일은 후학의 마땅한 도리이자 수승한 가치를 이어나가는 수행정진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선조 500여년의 불교 억압과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며, 전승해야 할 고유한 불교 전통이 위기를 맞았던 절체절명의 시기에, 스님께서서는 불교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청정계율과 수행선풍을 올곧게 잡아주셨습니다. 스님의 혜안과 헌신적 실천이 없었다면 불교계는 본연의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님의 자취를 두루 펼쳐보면 끝이 없지만, 포교의 현대화를 이끄는 혁신과 대중화, 그리고 독립운동에 확고한 원력으로 참여하신 일은 시대를 대표하는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일생동안 쉽 없이 이루어내신 많은 일들이 실로 놀랍고 종도들은 예경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존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누가 누구에게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

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 이 순간에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불교를 지키고, 민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신 원력과 정신의 가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가는 길을 걷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라에 큰 슬픔으로 불신과 원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 때, 오늘 심포지움이 갖는 의미는 스님께서 대중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신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와 민중을 감화했던 덕화를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고 계승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5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